

● 1988년 9월 1일 발행
● 발행인 / 이호재
● 발행처 / 한국여성민우회
● (02) 313-1060
● 서울 서대문구 홍정로
3가 30-6
● (02) 313-1060
● 값 / 500원

함께가르여성

1988
9

통권 제13호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사진 · 한상균

지금 우리 여성운동은 새로운 힘으로
충전되고 있다.

지금껏 그 혹독한 무권리 상태에서도
손가락 하나 꿈틀거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다가는 재물에 지쳐 재발로 노동시
장에서 쫓겨나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일하는 여성, 노동하는 여성들이 드디어
큰소리로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평생노동권 확보'를 위해 결혼퇴직제
철폐, 차별임금 철폐, 모성보호를 요구
하는 목소리가, 이제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만치 전국 방방곡곡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들려오고 있다.

여성으로서 고통받는 모든 대중이 함
께 힘을 천명하며 민우회가 창립된 지
작 1년이다. 그간 우리앞에 벌여졌던 일
하는 여성대중의 새로운 자각과 움직임
은 이와같은, 즉 일하는 여성대중이 여
성운동의 참 주인이 되어야 함을 재삼
확인하는 과정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그 거대한 움직임들은 그 힘을 더욱 강
하게 꾸려내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어깨
에 걸려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 본문 '이렇게 생각한다' 중에서 -

목차

- 2 이렇게 생각한다 / 일하는 여성들이 일어서고 있다
여성만광 / 반쪽 햇빛, '88 반쪽 올림
- 3 생활속의 실천 / 통합고지서는 안돼 /
- 4 현장의 소리 / 아주피이프 노동자가족
- 5 현장의 소리 / 롯데월드와 싸우는 주연
- 6·7·8·9 여성노동의 현장 / 차별임금 II '사무직'
- 10·11 이야기마당 / 영화 '도전 타임즈'
- 날맛맞추기
- 12·13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 한국아르보트·정구성심원

- 14·1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III /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
간현말 흐르는말
- 16 이런 모임 / 노동자부인들이 연 일일주점 '부인들이 모여 지력 탁
아소'를
- 17 여성민우상담실 / 노조위원장에게 재밌게 물어봅니다
- 18·19 이달의 소식 / 여성노동자전진대회·사무금융노련 신고광종 받아
수원·신원·신원
- 노래를 바꿔 불러봅시다 / 7월8일
- 20 독자독후감 / 날아라 정신꽃대아

이 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이 일어서고 있다

여성으로서 고통받는 모든 대중이 함께 힘을 천명하며 민우회가 창립된 지 꼭 1년이다. 그간 우리앞에 벌어졌던 일하는 여성대중의 새로운 지각과 움직임은 일하는 여성 대중이 여성운동의 참 주인이 되어야 함을 재삼 확인하는 과정 바로 그것이었다.

너무도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운동'을 둘러싼 '오해'는 계속되고 있다.

그 '오해'라는 것들을 하나 하나 따져 보자면 참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죄다 펼쳐보는 일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풀어제끼기 위해 싸워나가는 것을 여성 운동이라 할 때 물론 그 싸움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 태도들을 고쳐나가는 일은 중요하다. 그 시선·태도들을 고쳐 나가는 것 역시 여성운동의 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그러한 오해·편견들이 어떻게 하여 궁극적으로

극복되는지를 무수한 역사속에서 똑똑히 보아 왔다. 그릇된 생각들을 마침내 고쳐내는 것은 그 어떤 호화로운 말싸움이 아닌, 실제 운동을 바르게 풀어나가는 주체들의 정진, 주체들의 모여진 힘인 것이다.

민우회 창립 1주년을 맞으며

지금 우리 여성운동은 바로 이 새로운 힘으로 충전되고 있다. 지금껏 그 혹독한 무권리 상태에서도 손가락 하나 꿈틀거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러다가는 제풀에 지쳐 제발로 노동시장에서 쫓겨나가는 것으로만 여겨졌던 일하는 여성, 노동하는 여성들이 드디어 큰소리로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여성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평생노동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물론 전적으로 맞는 말이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창조적으로 주체적으로 사회에 관계하기 위해서는 여성 역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바로 일하는 여성 자신이 그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우리 눈앞의 현실은 어땠던가? 어떤 때는, 아직 그 노동여성들이 너무 열악해서 앞장서기 어려우니 다른 여성들이 대신 나서야만 한다고들 했고, 또 어떤 때는, 노동시장구조에서의 여성문제는 노동운동의 힘이 커지면 그속에서 자연 해결될테니 여성운동은 여성의 법적 지위개선, 일상적 남녀불평등의 제거에 주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들 했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여성운동의 흐름과 일하는 여성들의 싸움이 따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사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일하는 여성들의 싸움은 바로 이러한 오해와 편견들을 깨끗이 날려버리고 있다. 일하는 여성, 다시 말해 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그리고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전문직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성문제 해결의 핵심이랄 수 있는 '평생노동권 확보'에의 요구가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결혼피직제 철폐, 차별임금 철폐, 모성보호 요구의 목소리가, 이제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을만치 전국 방방곡곡,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이제야말로 명실상부 여성운동의 고평을 물어내고 힘차게 뛰어나갈 주인들이 속속 제자리를 찾아 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또 아예 일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가정에 묶여있는 여성들이 이제야 한데 얹어 '여성의 인간화'를 부르짖을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으로서 고통받는 모든 대중이 함께 힘을 천명하며 민우회가 창립된 지 꼭 1년이다. 그간 우리앞에 벌어졌던 일하는 여성대중의 새로운 자각과 움직임은 이와같은, 즉 일하는 여성 대중이 여성운동의 참 주인이 되어야 함을 재삼 확인하는 과정 바로 그것이었다. 또한 그 거대한 움직임들은 그 힘을 더욱 강하게 꾸려내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어깨에 걸려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한다. ■

여성만평



반쪽 햇불, '88 반쪽 올림픽...

그림·박경이

생활속의 실천

말씀 많은 통합공과금제도가 올 10월부터 서울 인천 광주 전역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내무부는 지난 5월 현재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주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통합공과금제를 내년 1월부터 대도시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런데 이를 다시 번복, 이제 이번 10월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그 준비단계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가호호 방문하여 사전조사라는 미명하에 마지막으로 낸 공과금 영수증을 확인, 시청료 납부상황을 파악하기까지 했다. 이는 곧 올림픽이 끝나는 시기에 맞추어 한시라도 빨리 시청료를 강제 징수하겠다는 의도요 시청료 거부운동을 막겠다는 뜻이다.

통합공과금의 대상은 전기료 TV시청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등 5종.

서울시가 제시한 통합공과금제도 시행 근거를 보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납부기일이 달라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장은 한꺼번에 목돈을 내게하여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상식을 외면한 것. 또 한 근거로 제시한 '가정에 빈번히 출입하여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빈번히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안요인이 아니라 징수원들의 횡포에서 비롯된 불안이다. 아울러 통합공과금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전기료나 상하수도료 등은 계속 계량기 검침을 해야 하므로 이 제도의 실시근거가 되지 않는다.

TV에 미터기가 달린 것도 아닌데

통합공과금제도를 따지기 이전에 시청료 자체부터 현행법상 모순이 많음에 눈 돌려야 한다. 수도 전기 전화 등 각 공과금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가정의 필요소비량에 비례한 요금을 계량기·미터기 등으로 정확히 측정해서 부과하며 그 질(質)에 불만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관계기관을 상대로 항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반면 시청료는 징수규정·방법이 이와 유사하지만 그 서비스 형태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각 가정의 문화적 성격, 방송 질에 따라 시청자들이 시청여부를 판단하고 채널선택권뿐 아니라 방송감독 권한이나 그 질에 대해 소송할 제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시민들은 TV를 보느냐 마느냐만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TV미터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률적으로 내보내는 전파에 대해 무조건 1달에 2천5백원을 내게끔 되어있는 것

통합고지서는 안돼!



서울시가 제시한 통합공과금제도 실시 근거를 보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의문이 생긴다. '납부기일이 달라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장은 한꺼번에 목돈을 내게하여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

이다.

이처럼 시청료 자체가 모순이 많고 일반 공과금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청료 강제징수를 위해 열명통방 하나로 묶어 공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통합공과금제도이다.

따라서 통합공과금제도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편의제도에 불과하다. 실제 각 공과금은 개별법이 있어 그 징수 절차가 따로이 규정되어 있다. 시청료 역시 방송법시행령이라는 개별법에 시청료징수절차가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공과금과 함께

부과한다는 규정은 없다. 통합공과금제도는 곧 현재 반민주악법인 방송법과 불합리한 방송국체제가 아직도 존속하고 있고 광고마저 계속하는 시점에서 명분없는 시청료를 강제징수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요 시청료거부의 정당한 시민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통합고지서 거부 서명운동들!

① 시청료 강제징수가 목적인 통합공과금제도 폐지를 위해 전국민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서명전단은 KB S-TV시청료 거부 범시민운동 여성연합(737-6891)이나 민주쟁취 국민운동 서울본부(744-2844)에서 받으면 된다.

② 통합고지서를 발부하는 서울시장, 내무부장관, KBS사장에게 항의전화를 한다.

서울시장: 735-6060

시장비서실: 735-6061, 735-8577~78

내무부장관실: 731-2001, 733-1481

KBS사장실: 781-2001

사장비서실: 781-2070

③ 반상회 등을 통해 이 운동을 이웃에게 널리 홍보하고 함께 의견을 교환한다. 서명운동, 분리고지신청 등을 할 때 힘을 모으면 한결 든든한 마음이 들 것이다.

④ 통합고지서가 나오면 동사무소에 가서 '시청료'와 '기타 공과금'으로 분리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분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이웃과 번갈아 간다든지 동사무소, 지역구청의 구청장에게 직접 항의전화를 하고 강력한 태도로 일관해야 한다. 또한 시청료거부단체나 그 지역 운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

나는 이렇게 거부했다

도봉구 수유5동에 사는 주부 손경애씨는 지난 8월 사전조사를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상회에서 통합공과금제도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그 부당함이 날날이 폭로되자 며칠만에 1백명의 통합공과금제도 반대서명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서명장을 동장에게 제출하자 압도적인 수의 단결에 굴한 동장은 통합고지서가 나오면 즉시 분리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 KBS 도봉출장소에서 손경애씨에게 협박전화를 걸어왔으나 1백명의 단결된 힘을 배후에 지고 있는 한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었고 고 한다.

현장의 소리/아주파이프 노동자가족



8월 21일 여성노동자전진대회에 나온 가족

“우리의 힘이 이렇게 큰 줄은”

올해 일어났던 노동자가족 투쟁은 실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그중 경기도 오산 아주파이프 가족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실는다. 본지에서는 직접 오산에 내려가 아주머니 세분과 이야기를 나눴다. : 편집자주

—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웠어요. 싸움 직전에는 무척 두려웠지만 싸움을 하고 앞에 나서니 힘이 저절로 솟아났어요.

— 맞아요. 아무 죄가 없어도 파출소 앞만 지나가도 가슴 두근거리고 움츠려 들었는데, 전경과 구사대와 맞서 발로 차고 물어뜯고 꼬집고 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잖아요.

88년 5월 24일 결성된 아주파이프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7만원, 가족수당 2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6월 20일부터 파업농성에 들어갔었다. 아주파이프 노동자들은 그전까지 기본급 13만원, 4천에서 7천원의 상여금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4.5명의 가족들이 살기에는 절대적으로 모자랐고 가계부에 울리기에조차 부끄럽고 치가 떨렸다고 한다. 노조가 6월 9일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잔업거부,

간부들의 삭발단식으로 파업투쟁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해지자 가족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부인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고 가족투쟁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2백50여명의 노동자중 1백50여명의 가족들이 공장 바로 옆 사택에 모여 살기 때문에 모이기가 더욱 쉬웠다고 한다. 돈 한푼없이 파업을 시작하게 되자 가족들은 파업기금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 모내기 품팔기, 벽돌쌓기, 종이붙이기 등 우리는 돈벌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어요. 입술이 붙어터지기도 하고 벽돌에 깔려 발가락이 골기도 했구요.

— 집집마다 건어 한가마니반의 예비식량을 마련하고, 한가구당 1만5천원씩 성금을 모아 한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파업기금을 모으기도 했지. 꼬마들까지 나와 나물을 뜯어 부식마련을 하기도 했구.

물론 가족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싸워나갈 때, 이제껏 개인적으로 살아왔고 어려운 형편들이라 힘을 합쳐 싸우기까지는 말도 많고 분열도 많았다. 가족까지 나서서 설치면 쫓겨나고만 있다는 걱정이 있기도 했었다. 그만큼 많은 설득과 인내가 필요했다.

— 남편들이 일했던 작업장을 둘러보면 서 우리는 싸워야 하고 꼭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지요. 크레인 소리가 너무 커 귀가 찢어질 정도였어요. 이런 힘든 곳에서 일해 온 남편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를 악물었어요.

— 가족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안해본 것 없이 다해보고 고생이 무엇인가를 오랜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바로 힘의 근원이지.

— 그래요. 남편들을 위해 싸운 것도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싸울 수밖에 없었지요. 처음 노래부르고 구호외칠 때는 쑥스러웠는데 나중에는 누구보다 힘차게 했어요. 지금도 ‘늬운 노동자의 노래’를 듣거나 부르면 가슴이 찡해요.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7월 4일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홍보물을 나눠주기 위해 40여명이 강남에 있는 본사로 갔다. 그런데 회사측은 ‘너무나 머리를 잘 굴려’ 구사대를 배치해 두고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측의 과민한 반응으로 더 단결하고 악에 바치게 된 것이다. “당

신들도 하루 4천3백원 받고 살아보라”며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전경, 구사대와 대치했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협상에 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사장은 다음날 10시에 오산공장으로 와 협상에 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 사장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리로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는 전화 연락만 해왔다. 오산공장에 일부가 남고 1백50여명의 조합원과 가족들은 관광차 2대를 빌려 본사로 갔다. 최루탄, 불발탄, 화염병,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달려간 것이다. 많은 숫자와 힘에 눌린 구사대는 도망을 쳐버리고 조합원과 가족들은 본사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한참 농성을 하고 구호를 외칠 때 서초서 정보과장과 실랑이를 하던 조합원이 기절하고 말았다.

— 그분이 기절한 것을 보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군요. 아직도 저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니들, 가자”라고 외치며 도로에 뛰어들었어요. 우리가 도로를 점거하자, 남편들은 잠겨 있던 정문을 부수고 사장실까지 올라갔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장과 담판을 벌이기 시작했죠.

— 시민들의 격려도 우리에게 힘을 주었어요. 박수를 쳐주기도 하고 빵과 우유를 사주기도 했지요. 수리점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우리에게 민정거리다가 우리 아주씨 한분에게 “너는 노동자가 아니냐”며 혼난 일도 있지만요.

결국 다음날 아침 합의서에 대한 공중을 받았다. 모든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고 쟁의기간 중 임금 1백%, 정신적 위로금 3만원씩을 받아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노조활동을 적극 방해했던 악독 반장 5명을 해고시키고 유니온살 재도를 따낸 것이다.

— 우리는 단결로써 우리의 권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번 싸움을 통해 우리 여성들도 우리 노동자부인들도 얼마나 대단한 힘과 투쟁력을 가졌는가를 깨달았어요.

임금인상투쟁을 승리로 이끈 아주머니들은 여기에서 만족하고 있지 않았다.

— 가족투쟁위원회는 부녀회로 명칭을 바꿔 사택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찾을 것입니다. 소비조합을 운영한다든가, 사택개조를 한다든가, 탁아소 운영을 하는 등, 우리자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겁니다. ■



“눈이 아파 못살겠다”

우람한 몸체를 자랑하는 잠실 롯데월드. 그러나 이 때문에 피해입은 주민들에 대한 롯데월드측의 대응은 참으로 누추했다. 재발기업을 횡포에 대항해 올해 1차내 끈질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 주부의 글을 실는다. 편집자주

박효영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22동)

“롯데월드 하얀 타일, 유리돔 눈이 아파 못살겠다”

“내온사인 철거하라”

“신격호는 해결하라”

“롯데는 매판 소비재벌”

올림픽 단장이 한창이고, 세계적 규모의 복합상가, 호텔, 유흥건물이라는 롯데월드가 완공을 앞두고 마지막 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잠실 네거리, 롯데월드와 마주보고 있는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 522동 530동에 어지러이 붙어 있는 현수막에 써어진 글귀들이다. 한동안 각 일간지에 조금씩 실리기도 했으나 지

금은 올림픽에 밀려서인지, 소문도 없는 가운데 우리 주민들과 대재벌 롯데와의 싸움은 벌써 7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다.

아이들까지 현기증

문제의 발단은 롯데월드와 우리 아파트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데 있다. 잠실 주경기장의 2배 크기의 땅에 좌·우로 12층짜리 백화점이 서있고 가운데가 주재공원건물로 한치의 공간도 없이 붙어 있는데 건물의 길이만 3백미터에 이르고 34층의 호텔이 있으므로 서 있는 롯데월드, 이 초대형 건물이 들어서면서 우리들이 입은 피해, 그것은 환경권, 재산권, 자녀교육, 나아가 건강에까지 막대한 침해를 주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착공당시 밤과음, 번지, 소음 등이 석촌호수와 하늘에 가득하여 혼란스러웠고 공사기간에 쫓긴 후부터는 대낮같이 불을 밝혀놓고 24시간 작업을 하는 통에 잠을 설친 지는 오래다. 그러나 이 정도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건물이 형체를 갖추면서 주재공원의 지붕인 유리돔이 거울같은 작용을 해 아파트 실내에 거대한 햇무리가 반사되어 눈이 아파 못살 지경이 된 것이다. 무심히 밖을 내다보다 빛에 놀라 눈을 돌리면 앞이 캄캄해지면서 현기증이 났다. 아이들은 더 심했다.

유리돔이 완성되자 이제는 복사열로 실내온도가 높아져서 화초가 말라죽고 베란다에 둔 플라스틱 그릇이 녹아내렸다. 건물의 외벽재인 흰타일의 빛반사 또한 시각의 단조로움과 함께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백화점A에 설치한 전망용 엘리베이터는 우리를 거실과 마주보게 설계되어 사생활까지 침해받게 되었다. 그뿐만인가? 각종 기기묘묘한 모양의 네온사인온 얼마나 시각을 어지럽힐지 모른다.

단조롭고 삭막한 아파트 생활에서 그래도 석촌호수가 보이는 것을 작은 위안으로 삼았는데 그것도 뺏겨버렸다. 교통은 얼마나 번잡해질 것이며, 그에 따른 소음공해, 공기오염은 또 얼마나 지독할까. 각종 유흥장, 호텔을 들고 나는 부나비(?)들 때문에 이 일대가 우범지대화 하지않을까 하는 것도 걱정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고, 이사를 가려해도 팔리지도 않는다.

통장이 앞장서 피해설문지를 돌려

그러나 어찌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몇달은 용화제도(?) 잘 참던 주민들이 지난 2월부터 술렁이기 시작했고 통장님이 앞장서서 각 가구에 설

문지를 돌려 피해내용을 정리했다. 그것을 롯데측에 건네주고 온 것이 첫 접촉이었다. 롯데측 총괄소장은 통장님댁을 방문하여 피해를 인정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5월이 되자 화가 난 주민들은 피해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롯데와의 싸움중 한명은 실명까지

추진위원회의 지도아래 6월부터 시위와 협상의 줄다리가 계속되었다.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벌인 첫 시위에서 손이 찢어지고 출도자까지 나왔다. 롯데는 시위가 있자 처음으로 유리돔에 녹색천을 덮어 반사를 막는 알량한 대책을 세웠다. 남작들도 합세한 일요일, 공사장에서 이틀간 철야농성을 하면서 유리돔 철거와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는 협상은 커녕 부녀자만 있는 대낮에 일부를 위장한 깡패를 동원시켜 몸을 들이대고, 갖은 상소리로 해산을 종용하고 점심을 먹는 주민들에게 깡통에 든 오줌을 뿌리는 악질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롯데와의 긴 싸움중에 주민들중 두사람이나 입원하고 한명은 눈을 다쳐 실명 상태에까지 이르러 우리의 치를 떨게 했다.

추진위원회는 주민의 피해를 12항으로 정리하고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서 시설물로 보완할 수 있는 것 6항은 보완하고 나머지 6항은 금전적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롯데는 베란다에 케어글라스를 설치해주겠다는 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재발기업의 횡포가 어느 정도 인지를 체험케 하는 귀중한 기회를 갖게된 것이 롯데 씹쓰레하다. 우리들이 시청에 요청한 환경영향 평가와 도시계획상 잘못된 허가가 아니었다 하고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요구한 질문에 롯데와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는 시청의 답변 역시 누구를 위한 관인가 하는 생각을 끊임게 했다.

아파트의 개인주의를 넘어서

현재 올림픽 평화구역이라 시위를 못하게 돼있어서인지 롯데측은 말없이(?) 공사에만 열심이다.

그러나 우리를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돌돌 둥치 한덩어리가 된 주민들의 단결력을 허술히 보아선 안될 것이다.

장마비에도 아랑곳없이 젖은 옷을 휘어짜며, 명동 롯데 1번가에서 시위를 하면서, 우리들은 아파트의 냉랭한 개인주의를 넘어서 같은 문제를 나뉘어진 한 공동체임을 실감하게 되었다. ■

여성노동의 현장/차별임금 II '사무직'

지난호에 이어
남녀차별임금
실태를 살는다.
이번에는 차별
임금이 생산직보다
더 극명히 그리고
더 조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무직의 실태를
알아봤다.
: 편집자주



분리호봉·승진제한이 차별임금 부채질

"올해 들어 직장생활 11년째, 입사동기 남사원은 과장, 부장으로 다 승진했는데 19살의 남자신입사원보다 월급이 적어요. 더 이상은 못참겠어요"

'결혼피직제'의 벽이 서서히 무너져가면서 차별임금에 대한 사무직 여성들의 불만이 분출되고 있다. 이는 곧 직장을 결혼전 잠시 머무르는 임시정류장이 아니라 평생직장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아선 담벼락은 역시 만만치 않다.

"여사원 업무는 남자와 다른 단순, 보조업무인데 임금 차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요"

이처럼 '차별임금'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당연하다는 반박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 이 거리를 좁혀 원만한 해결책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무직여성들이 어떤 여건에서 일하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사무실 정리정돈이 끝나기가 무섭게 빠른 속도로 타자치기, 정화성과 치밀함이 요구되는 장부 및 영수증 정리, 문서수발, 전화발기, 잡무(사무직여성들은 이를 3C업무라 부른다. 커피(Coffee), 담배(Cigarette), 카피(Copy)) 등등... 다른 남사원들이 진행하는 일을 마무리하는 단순 보조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사무직 여성들의 대체적인 업무 내용이다.

같은 학력이어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여성임금

"거기, 사람 좀 바꿔주세요"

대부분의 사무직여성들은 이런 외부 전화를 받고 당황하고 분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여사원을 '사람' 속에도 끼우지 않는 전화내용이지만 부서 전체의 내용을 모르고, 더우기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변변한 항의조차 못한다는 것 또한 공통된 점이다.

물론 처음 몇번은 당당한 목소리로 여사원은 '사람' 아니냐고 반문하지만, '사람-남사원-주요업무 담당자'라는 현실의 벽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그만 재물

에 곁이게 된다.

여성은 이처럼 능력이 낮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초임에서 남성임금의 60%내외 정도).

"저희 여사원들에게는 주요 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담당할 능력있어요? 시켜보지도 않고 어떻게 능력이 없다고 단정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돼요"

"저희가 맡는 일은 특히 전문직 남성의 업무보다는 그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같은 학력의 남성들이 하는 일과 비교할 때 엄청난 임금차이가 날 정도로 숙련도가 낮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직 여성들은 같은 학력의 남성에게 비해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업무=보조업무=저임금,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나

여성업무=보조업무, 보조업무=저임금이라는 용치고 뗄 수 없는 악순환.

이는 곧 여성노동력이 '값싸다'는 논리로 비약되어 남자가 거의 동일하게 일하는 업종에서도 임금차별이 있다는 데



**남녀 업무분리가
차별임금을 낳는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근 들어 대부분의 업무가 점차 자동화, 전산화되면서 남녀 직무구분이 모호해져 가는 은행, 제2금융권의 창구 일은 눈코 뜰 새 없는 과중업무인데도 임금격차는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하나같은 주장이다(초임에서 80-90%의 격차).

"우리 여직원도 창구에서 상담하랴, 단말기를 조작하랴, 출납업무를 담당하랴, 누구보다 손발을 빨리 놀리고, 거기에다 돈 만지는 일이라 저녁 때가 되면 과로가 되지요. 이젠 남직원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분명 일은 비슷한데 임금격차는 왜 계속되는 것일까? 이는 여자 하는일이 값싸다는 인식 때문.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가 여직원과 남직원의 분리된 임금체제이다.

2 차별임금의 뒷받침이 되는 제도, 남녀분리호봉체제

대부분 기업은 연공서열을 그 기본축으로 하면서 학력, 성별에 따른 분리호봉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일호봉제를 채택한 은행에서도 여직원만은 별도의 임금체제에 의해 임금을 받고 있다. '여직원'은 단지 여자직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최발단 직급을 일컫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호봉체제는 여성에게 저임금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책정된 것. 단순·보조업무 분야에서는 근무기간을 짧게 하고 새로운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것이 임금 원가를 가장 절감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일정기간후에 여성이 곧 직장을 그만두도록, 남자에 비해 낮은 차별적 임금제도나 아예 승진을 차단하는 남녀분리임금체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금체제는 업무내용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사무직여성에게 적용되어 성별 임금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다.

남녀분리임금체제가 사무직 여성에게 얼마나 불리한 것인가 한 예를 통해 알아보자.

동일업종이면서 남녀 업무가 거의 비슷한 0기업과 1기업은 임금체제가 다르다. 남녀 모두 동일직급인 0기업의 남녀초임비율은 93.6%인데 비해, 남녀분리호봉체제를 실시하는 1기업은 78.9%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다.



3 갈수록 벌어지는 남녀임금격차는 승급·승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무직여성들은 초임에서 남성과 다른 일을 할 때 남성의 60%내외, 거의 비슷한 일을 할 때 80-90%정도를 받아 임금격차를 감수하면서 사회 첫발을 내디딘다.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는데...

'억울하면 시험을 봐라' 그러나 하늘의 별따기인 승급시험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해요"

"남자가 자동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15년이란 세월을 보내야 해요. 한 고참 언니는 15년이란 기간을 줄여 달라고 1개월 넘게 외로이 단식농성도 했지요"

남자가 되는 것이란 남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는 4년이 지나면 남자와 같아지고, 다시 3년이 지나면 대졸과 같아지는 걸지기 시험제도가 있는 곳도 있다. 이런 기업에서의 사무직 여성들은 승급·승진이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이런 제도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울며 겨자먹기로 시험에...

올해 처음으로 남자직급으로의 승급시험을 도입한 1회사. 승급시험에 합격하면 95.9%로 그 격차가 줄어들며 울며 겨자먹기로 시험제도를 여직원이 받아들이었다. 대부분 남자 직급으로의 승급시험은 문제가 어렵고, 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합격률이 저조한 편인데도 말이다.

승진이 여성임금에 미치는 실제 변수를 여러 사업장을 통해 보자.

1년 1월 : 초임격차 (84.9%)

8년 1월 : 초임격차 (61.6%) 6년 1월 : 초임격차 (49%)

2년 1월 : 초임격차 (93.6%)

10년 1월 : 초임격차 (63.6%)

3년 1월 : 초임격차 (95.9%)

10년 1월 : 초임격차 (93.1%) 5년 1월 : 초임격차 (50%)

4년 1월 : 초임격차 (81.4%)

5년 1월 : 초임격차 (62.7%)

5년 1월 : 초임격차 (61.9%)

5년 1월 : 초임격차 (51.3%)

8년 1월 : 초임격차 (74.8%)

10년 1월 : 초임격차 (66.3%) 5년 1월 : 초임격차 (38%)

비교적 대우가 좋다는 사업체내에서도 10년을 전후해서 임금격차가 50-60%로 벌어지고 있으며 근무연한이 지날수록 격차는 심해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승급·승진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4 사무직여성들은 기본급이외에도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

이상은 기본급만의 분석자료다. 각종 수당, 상여금, 후생적 급여를 포함한 실제 수령액의 차이는 더 엄청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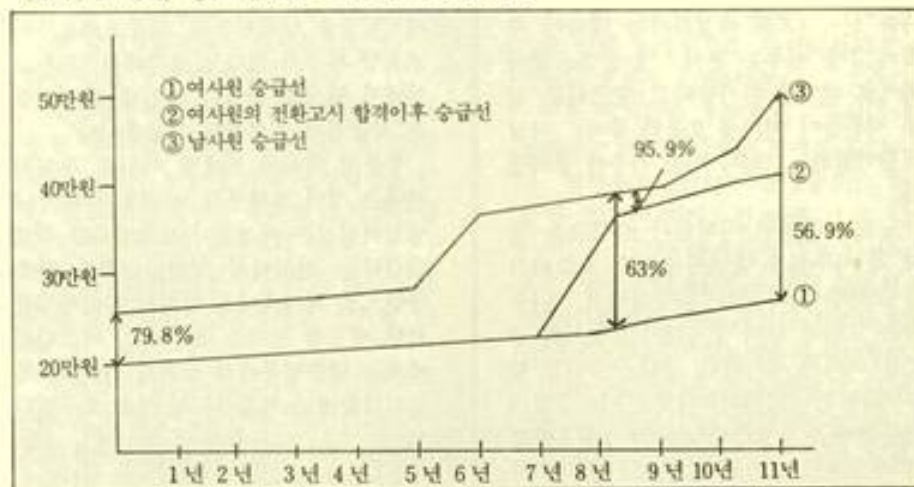
각종 수당의 임금차이

수당의 종류는 각 사업장에 따라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지만 기본급에 준해 정률로 지급되는 가계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특수수당 등이 있으며 남성에게만 지급되는 직무수당, 기술수당 등이 있다. 남녀 초임격차가 65%인 1기업의 경우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총액은 56%로 더 벌어지고, 월 기본급차액은 7만 1천 3백원인데 비해 월평균급여총액은 28만 4천 9백60원으로 4배 이상 벌어지게 된다.

인사고과에서도 피해를 입는다

심지어 재벌기업인 1기업에서는 인사

(표 1) 1회사, 승급·승진여부에 따른 임금비교율



여성노동의 현장/차별임금 II '사무직'

교과가 능력급제도로 전환된 후 부서별 특진자(3명) 및 감봉자 정원이 정해지는데 남자사원 감봉 대상이 없을 경우(승진된 사람, 1년 미만자, 승진시험 대상자 제외) 사무직 여성 1명이 임의 감봉되어 상여금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의 부당함을 느낀 한 여직원이 인사과를 한 상사에게 따졌더니 "남자들은 회사가 평생이 걸려있는 문제이니 여자가 좀 참아줘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상대평가에서 누군가 희생되어야 하는 인사과제제인만큼 남자를 위해 여자가 양보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의해 사무직 여성은 임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후생적 급여의 차이

식비, 교통비, 경조금, 주택자금 대출 등 후생적 급여에서의 차별도 무시할 수 없는 임금차별에 속한다.

대부분의 회사가 교통비, 식비 지급은 정액제이지만 간혹 차별을 두고 있는 곳도 있다.



"누구는 불고기 뱌반에 택시타고,누구는 라면에 버스타야 하는 굼뎡기 후생비 차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요. 여자는 연약해서 힘센 일 못하니까 임금 적

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때는 언제이고, 만원버스에 시달려도 생생하고 라면으로 점심 끼니를 때워도 끄떡없는 힘센 여자도 갑자기 취급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주택자금과 임차보증금의 대부에 있어서도 남자는 무주택자로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는 무조건 대부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아예 혜택이 없거나 있다해도 결혼후 남편과 사별하고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의 단서조항이 붙는다. 이러한 사항은 가족수당,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에도 거의 똑같이 적용된다. 사교육기관의 경우처럼 맞벌이부부 가운데 한편이 혜택받지 못하면 남녀 구별없이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 조치임에 틀림없다.

차별임금, 이렇게 좁혔다 ① 대립산업건설

여직원, 만년 6급 별정직에서 풀려 승급

지난 4월 건설업체에서 최초로 본사 전문·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노조가 결성된 대립산업건설.

이번 임금인상때 여직원초임을 17만7천원에서 24만4천원으로 올려 종래 남직원 임금의 74%이던 것을 83%수준으로 올렸다. 6급 별정직으로 묶여 있었던 여직원 직급을 5급으로 전환, 남녀임금격차를 줄인 것.

처음으로 맞는 임금협상

건설업이라는 보수적 분위기에서 그 흔한 머리띠, 대자보 한 장 없이 점잖게 노조총회를 치렀지만 이번 임금인상시기에는 조용하게 있을 수만은 없었다. 매사를 신사적으로 해결하려는 넥타이 부대가 주를 이루는 본사, '농성'도 불사하기로 했지만 자가용타고 출근하는 일부 직원들이 여기에 호응해 줄지 막상 의문이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했다.

노조 사무장인 여직원이 마이크를 들고 각 사무실을 돌면서 참여를 호소하자 전 조합원이 회장·부회장실에서, 나중에는 로비에 틈새 주저앉아 노동자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서로를 이어주었다. 건설업의 최초로 2년만에 약 1천2백명이 해고되어도 찍소리 한번 못한 과거와

비교할 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가. 2차 협상이 끝나고 쟁의발생신고를 했더니 16.5%인상안이 15%까지 좁혀져 일단 합의를 하고 1월부터 소급 적용, 실제로는 20.6%의 인상효과를 낸 셈이다.

"남녀동등임금까지 한꺼번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더군요. 여직원 1백명의 문제로 2천명이 나설 것 같지 않아서였습니다. 또 여직원들은 5급갑(남사원직급), 5급을(여사원직급)로 구분된 직급의 문제점을 들고나섰지만 조합원이 인상된 임금을 받는 것이 늦어진다면 그 원망을 여직원들이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노조설립 공신인 여직원들을 남직원들의 집중포화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그 선에서 협상을 끝냈던 것인데 여직원들은 지금까지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부분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을 통일시켜내는 것이 집행부의 어려움이라는 나 상설위원장은 여성들이 보조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현실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방안으로 회사측에는 여직원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고, 여조합원에게는 단순업무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에 노력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고.





이제, 남녀
임금차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별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가능한 남녀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②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는
것으로
③직무가
달라도 그
격차는 줄여
나가는 것으로
되어져야
한다.



이는 노동자를 갈래갈래 나눠놓고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싸워야 할 대상, 목표는 하나이다. 모
두, 전체 노동자의 하나된 힘으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문제가 시급하다
고 서로를 부분만을 강조한다면 분열의
틈새 때문에 어느것 하나 이루어지지 못
할 것이다. ■

조직의 힘으로 줄어드는 임금격차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차별적 저
임금.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직원들은 10
여년전부터 힘을 모아왔으며, 이제 용트
림을 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여직원의 의
식정도와 단결여하에 따라 모양새를 달
리하며 진군해가고 있다. 이는 어느날 갑
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온전예의혜이
루어진 것이 아니라, 빗방울이 모여 개
울물이 되듯이 쉬지 않고 노력한 대가이
다. 각성된 개인의 무지에 의해, 혹은 여
직원회를 중심으로, 때로는 노조를 중심
으로 차별의 찌꺼기들이 걸러지고 있다.

사복차림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한 금성전선 여직원들, 7년이 지나
면 호봉액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항의한
제일부자 여직원들은 여직원회를 중심으
로 임금조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노조가 있는 곳에서는 훨씬 진전된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와 같은 대우
(4급갑)를 받을 수 있는 승급제도를 신
설한 해동화재, 여사원 단일호봉제와 승
진제도를 신설한 현대해상, '전환고시제'
를 도입한 대한투자신탁, 단일호봉제를
채택한 웅진출판사, 호봉표작성소위원회
에 여성부장을 참여시켜 여직원의 입장
을 반영시킨 일요신문사 등이 바로 그곳
이다. 민주노조가 작년이후 들불처럼 결
성된 이래 '여용' 위원장이란 유행어가나

울 정도로 자주적 민주노조의 위원장들
은 여성노동자 처우개선에도 앞장서고 있
는 추세이다. 이는 물론 민주노조를 지
켜나가는 데 여성노동자들이 굳건한 받
침돌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금격차 해소방안

이제, 남녀임금차이를 줄이기 위해 어
떻게 해야 할까?

그간 차별임금을 없애기 위해 '동일노
동 동일임금'만을 주장해 온 감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노동에 대한 차별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 작업배치를
다르게, 호봉을 다르게, 승급·승진에서
의 배제 - 저임금을 주는 교묘한 방식에
의해 남녀임금격차가 실제적으로 벌어진
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①가
능한 남녀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②동
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받
는 것으로 ③직무가 달라도 그 격차는 줄
여나가는 것으로 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가 안고 있는 임금
문제 역시 여성노동자에게도 산적해 있
다.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정
착되지 않은 가족임금제,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임금격차 등등. 어디 그뿐인가.
학력간, 직급간의 임금격차도 심각하다.

차별임금, 이렇게 좁혔다 ② 동서증권

남녀동등한 승급시험제도 신설

86년 이래 계속된 증권계의 호황에 따
라 87년 6월 임금인상기를 맞은 동서증
권. 임금인상을 하면서 6, 7급 여직원이
6급으로 일괄 조정되었는데 4년이상 근
무한 여직원만이 2~3년 정도 감봉 조
정되었다. 찬밥 신세가 된 고참여직원
52명은 즉각 회사측에 해명을 요구했으
나 인사부장의 반발과 회사측의 무성의
한 태도가 그 답이었다. 근속연수가 오
래 되면 임금도 많아지고 삼불리 다들
수 없게 되므로 은연중 그만두게 하는
경영주들의 얄은 속셈을 간파한 고참 여
직원들은 6월 5일 전격적으로 노조를 결
성하였다. 위원장이자 전 간부가 고참
여직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승진의 체증으
로 불만이 컸던 남직원들도 속속 노조원
으로 가입, 강력한 노조로 부상되었다.
이로 인해 인사부장은 의원해직되고 여
직원의 호봉도 조정되었다.

이후 여직원의 호봉액도 늘려나가고
올해에는 여직원 승급시험제를 도입하였
다. 입사후 8년이 지나면 5급으로 승급
할 수 있는 시험제도가 바로 그것. 이미
8년이상 근무한 여직원의 경우 인사위원
회를 거쳐 전원 5급으로 승급, 8명의 여
직원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8년이 지나
6급으로 그대로 있는 경우와 시험합격으
로 5급에 승급했을 경우 69%의 임금격
차를 드러내고 있어 승급시험신설은 그
만큼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된 것이다.

이야기마당/영화 '모던 타임즈'

이옥 -제가 이 영화를 보러 갔을 때는 켈 포마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주위에 포 마들 웃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나중에 들 으니 방학중에 국민학생 데리고 온 엄마 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 영화가 결코 단순한 코미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학생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은 이 영화 를 어떻게 느꼈을지, 또 실제 공장노동 자들은 어떻게 느낄지 궁금했습니다.

이성 -콘베이어벨트 시스템 아래서 일하 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영화는 결코 박장대소하며 웃을 영화가 아니지요. 공 장에서 일하는 모습, 어쩌면 그렇게도 같 은지 현실에 대한 비판이 들 정도였어요. 내가 밀리지 않아야지, 밀리면 열등료들 에게 미안하고 감독자에게 죄스럽고, 정 신없이 매달리다 보면 끝날 때쯤이면 눈 앞에 벨트가 흘러가는 환영이 보이지요.

최성 -193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 화가 오늘날의 한국사정과 같을까 의아 슥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성 -어떤 점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느껴져요. 특히 중소기업의 공장 같은데서는 초시계까지 가져다 놓고 벨 트 속도를 빨리 하면서 자꾸 더 빨리 할 수 없냐고 다그치거든요. 저는 오히려 우리 형편이 1930년대 미국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 싶어 후진성을 느끼고 언제 달라 질까 싶어 우울했어요.

최성 -콘베이어 시스템의 등장배경이 노 동과정의 분절을 더욱 강화시켜서 노동 강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한다면 1930 년대가 아니라 80년대의 미국이라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옥 -그런데 일반적으로 매스컴이나 영 화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 영화의 의미 를 기계화의 진전에 따른 인간소외를 고 발하는 일종의 기계문명비판에다 두는듯 합니다. 노동의 지나친 분업이 노동소외 를 가져오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요. 하 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기에는 위험한 작 업, 지저분한 작업 등을 하는 데 기계가 사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채플린 이 간과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참석자 : 이성희 (아남산업 노동자) 최성에 (민주회 회원) 이옥경 (『함께 가는 여성』 편집위원)

자꾸만 길 떠나는 노동자가 되지 말고...

오리오리한 호암아트홀에서 개봉되어 장안의 화제가 된 '모던타임즈'. 그러나 영화의 내용은 그 개봉관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비련의 주인공 이었다. 그 이전

'노동자 채플린' '모던 타임즈'는 부터도 노동자들이 모이는 소집회 등에서 비디오로 상영되어왔었다. 이 영화를 본 세명이 이야기마당을 벌였다. 편집자주

기계를 통해서 자본주의적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는 것을 비판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접어둔 채 일반적인 문명비판영화로 한정시키는 것은 한 측면만을 본 것 아닐까요?

이성 -네, 기계화를 비판하려면 앞으로는 꼭 기계화로 인한 실업증가를 비판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른바 성장산업이라 기계화가 진척이 되었어도 아직 실업이 오고 그런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자동화가 많이 되면 실업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이것은 한 개인 기업주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정책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코미디여서 문제인 건 아니지요"

최성 -그런데 이성희씨는 극장에서가 아니고 성당에서 비디오로 이 영화를 보았다고 했는데요, 그때 다른 동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이성 -여러 반응이 있었지요. 뭐, 나도 저렇게 사는 것 같다, 괴롭고 우울하다,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등, 적극적인 노동자의 자세보다는 우울하다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들은 오락이랄까 하는 것이 많지 않고 노동피로는 쌓이기 때문에 영화들을 꽤 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일시적 오락영화, 멜로드라마, 섹스물 같은 것을 봐요. 또 노동자들이 우리들의 영화라고 느끼고 볼만한 것이 지금까지 거의 없었구요. 회사에서 가끔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차탈 레이 부인의 사랑' '도라이 쓰리' 같은 것이 최근 보여준 것이예요. 그런데 모던 타임즈를 같이 본 노동자들이 한말 중 우스운 것은 "그래도 '구사대'는 안보이네" 하는 것이었어요. 알고보니 미국도 그당시 구사대폭력이 난무했다고 함디다 만은.





이옥 -이 영화가 코미디라는 형식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나요? 예전에 '위터 프론트'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하고 대비가 되더군요. 그러면 오히려 코미디가 아닌 직설적인, 정면으로 다루는 방식이 낯지 않았을까, 채플린의 코믹한 동작, 장면들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서 본래의 의미를 온전히 찾아내기가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최성 -네, 공장노동자들도 이 영화의 의미를 코미디로서 더 강하게 보지 않을까, 채플린을 코미디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하더군요.

이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



람이 가장 슬플 때는 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웃는 모습속에서 슬픔을 더욱 진하게 느꼈어요. 웃으면서 눈물이 고인다고 할까요. 첫 장면의 돼지들이 실려가는 모습도 얼마나 우스우면서도 찡한가요? 그 사람이 천재라고 한하는데 정말 천재적인 것 같습니다.

최성 -채플린의 영화를 저는 다른 것도 몇개 보았는데, 대부분 희망과 낙관으로 끝이 나더군요. 그러나 실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좀 미진했습니다. 너무 정답을 상정해놓고 내놓는 것 같았어요.

이옥 -그런가요? 저는 다른 영화는 못 보았는데 어느 신문의 영화란에 채플린의 영화중 유일하게 희망적으로 끝나는 영화라고 되어 있던데요?

희망인가 절망인가

이성 -그래요? 저는 전혀 희망이라고 안 봤는데요. 마지막 장면이 소년과 함께 다른 곳을 찾아 햇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뒷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희망보다는 또 다른 절망을 느꼈어요. 자기네가 떠났던 굴레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말이예요.

이옥 -그것은 영화가 그렇게 표현했다기보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은 경험으로 알 수 있지요"

이성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떠나는지는 몰라도 새로 가는 곳 역시 별 볼일 없을 것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이 공장다니다가 조금 나을성 싶어 저 공장으로 옮겨보고, 또 옮겨고 하지만 오십보 백보 차이이고 별로 다른 게 없거든요.

최성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노동자들의 현실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것은 지적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성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진짜 희망과 낙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자꾸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단결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지 않아 좀 아쉬웠습니다.

이옥 -채플린이 1950년대 미국을 휩쓸며 카시즘에 몰려 사회주의자로 낙인이 찍혀 추방당한 채 스위스에서 죽었다고 하지요. 오늘날 미국을 위시한 서구 각국에서 갈수록 그의 영화가 성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올해에야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것도 결국 작년 6월의 민주화투쟁이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날 말 맞 추 기



〈가로열쇠〉

① 종이와 붓, ③ 성(性)에 대한 건전한 지식을 주기 위한 교육, 이 교육은 아홉을 때부터 필요하다고 하죠. ⑥ '올림픽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라는 요상한 이유로 8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체의 안전장해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죠. ⑦ 구약, ⑧ 자기 스스로 하는 성질이 나 특성, ⑨ 고리를 여러개 이어 만든 줄, ⑩ 니코틴하면 생각나는 것, 미국것이 올라와 우리 농민을 몰리고 있지요. ⑪ 동전사화를 지형해 주던 사상, 주권관계를 염수하여 연속적인 생활을 강요하며 각자의 개성적 발전을 무시하는 사상, ⑫ 슬리고 좋아하는 동물, 울·탄배·차·커피 등등, ⑬ 밧진 것을 얹어 줄, 농어만 부채, ⑭ 귀염을 받으려고 할랑거리는 것, ⑮ 딸다, ⑯ 81년 미국에서 발견, 이 방에 걸리면 문명의 면역체가 파괴되는 무서운 병, 올림픽을 앞두고 심히 걱정됩니다. ⑰ 화력이 약하고 질이 좋지않은 나뭇 탄, ⑱ 은하수의 순수한 우리말.

〈세로열쇠〉

① 대지의 평면, ② 발표된 글이 문제가 되어 법률상 사회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 사건, 중앙경제신문의 모종근부장 데려간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③ 성스러운 지역, 그러나 본래의 뜻과 달리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곳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④ 남도지방에서 널리 불리는 집가의 한가지, ⑤ 여럿이 함께 놀아 지르는 고함 소리, ⑥ 조그맣고 둥근 구슬처럼 만든 사탕, 본말사탕

이라고도 하죠. ⑦ 순돌이에 이것으로 물들어 첫눈을 때까지 남아있으면 첫사랑에 성공한다고 하지요. ⑧ 일종의 놀이말, ⑨ 〇〇〇〇에 접하기가 도장신한 자리면 산다, ⑩ 소금이나 치약으로 이를 닦는 일, ⑪ 물건 값을 깎는 일, ⑫ 무덤.

〈지난호정답〉

장	마	구	미	호	아
아	침	나	질	들	기
찌	비	앙	갑	부	
마	장	관	금	서	
나	이	테	능	청	폰
동	미	사	일		
선	풍	기	초	가	집
점	아	롱	아	롱	권

●정답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9월 25일까지 접수된 정답을 추첨, 그중 다섯분에게 6개월치 신문료 우송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서울 은평구 용암2동 242-14 14동 9번 박이선씨, 서대문구 정자동 477 18동 4번 권정희씨, 강남구 개포2동 주공아파트 227동 308호 임은하씨, 서초구 양재2동 473-4 25동 3번 임희선씨, 강남구 대치동 주공고층아파트 305동 504호 심현정씨입니다.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찌는듯한 무더위속에서도 구사대폭력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여름내내 직장내 폭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두 사업장을 찾았다. : 편집자주

탐방1

한국아쿠르트

구사대폭력 보호하는 평화구역!?

"서울 시내 한복판을
올림픽 평화구역이라
정하고 우리 위원장
까지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생존권을
쟁개치고는 평화구역
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사대를 막기 위해 테이프를 벽면에 붙여놓았던 엘리베이터문

8월 25일 본회 회원들은 '평화구역설치 제1호 구속자'를 낸 데 이어 바로 그 다음날 새벽 무자비한 구사대가 들이닥친 한국아쿠르트 농성장을 찾았다.

낮선 이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상공회의소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리는 순간 무수한 대자보와 요구사항을 적은 플랭카드가 농성장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았다.

"서울 시내 한복판을 올림픽 평화구역이라 지정했다지만, 결코 생존권을 쟁개치고는 평화구역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농성장 입구에 수북히 쌓인 바리케이트를 사이에 두고 신문을 묻는 조합원들에게서 불시의 침입자들에 대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농성장사수를 위한 구사대와의 싸움은 이들을 더욱 단련시킨 듯 했다.

"피를 보니 정신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생각으로 싸웠습니다"

지난 8월 21일 새벽 구사대가 쳐들어왔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운 한 조합원은 눈이 빨개지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면서도 이 조합원은 당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12명의 남자와 가족 등 단 20명의 조합원이 1백여명의 구사대를 물리쳤다는 것에 무척 자부심을 가진 듯 했다.

지난 8월 20일 아쿠르트 노조원들은 회사측의 협상지연작전과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규탄집회를 상공회의소 앞마당에서 개최하던 중 평화구역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평소 나타나지도 않던 부사장과 이사진 등이 농성장에 올라와 한자와 조합원 가족에게 대표도 없는 상태에서 교섭을 하자며 온근히 분위기를 띄우려 했다. 당연히 교섭이 결렬되자 이들은 새벽 2시경에 술에 취한 구사대를 투입했던 것이다.

"아래를 내려다 보니 차들이 더 많이 와있더군요. 위험을 예감하고 바리케이트를 쌓았지요. 잠시후에 비상구의 출입문을 도라이버로 뜯어내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양쪽 계단의 출입문이 다 떨어져 나가자 괴성을 지르며 구사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쇠파이프 등의 흉기와 소화전, 소화기를 마구 휘두르고 쏘아 댔어요. 우리는 사무실에서 발견한 알루미늄 막대로 막으며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아마 지금도 뺨속에 분말소화가루가 두둑히 쌓였을 거예요"

6개의 엘리베이터에서 동시에 올라오는 구사대를 어떻게 막아냈는지 부처님께 기도했다.

"엘리베이터 문을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 봉하고 손으로 압력을 가하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아쿠르트 구사대 폭력에서도 중상자가 나타났다. 구사대가 마구 휘두

른 우승기의 긴 창날에 김용수씨는 눈위를 찔러 실명의 위기를 겨우 넘긴 채 7바늘이나 꿰맸고 최연석씨는 손이 찔려 역시 7바늘을 꿰맸다.

"22일 김용수씨가 남대문사로 봉대를 감고 면회를 와서 아쿠르트가 자기를 두번 죽인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때 모두 울었습니다"

60일이 넘고도 더욱 결연해져

한국아쿠르트에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은 지난 1979년.

그동안 30~40명의 조합원으로 유지를 해오다 작년 7~8월 무쟁이 지난뒤 조합원이 2백여명으로 증가하자 회사측의 탄압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생산직과 사무·영업직간의 이간질, 학연·지연 및 혈연에 의한 탈퇴 종용, 영업사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운운하며 노조를 깨부수려던 회사는 지난 11월에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도 구사대 폭력을 자행했었다.

사무직간부사원과 청부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구사대 2백50명을 동원해 1백여명의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했으며 노조간부 8명을 납치하여 19시간이나 감금시켰다.

이때 부상당한 김용수씨가 이번에 또 부상을 당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노조간부에게 정직처분 등 부당징계를 내리기 일쑤였고, 노조탄압에 미온적이었거나 노조 지지성명을 냈던 간부사원들에게 지방전출, 대기발령 등으로 보복인사를 했다. 위원장 김남수씨에게는 사소한 과실을 묵인해오다가 해고를 시켜 대표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한이 만료된 단체협약 갱신조차 거부했다.

이에 조합원들은 정의결의를 하며 회사측의 성의있는 대화를 촉구했으나 무산되자 지난 6월 28일부터 부당해고, 보복인사 철회 및 청부폭력 진상규명 등 6개항을 요구하며 파업농성에 돌입했던 것이다. 농성을 하면서 조합원들은 본사, 신설동, 대학로 등지에서 가두 피케팅을 하고 연합집회, 단식, 삭발 등 다양한 투쟁으로 회사를 협상 창구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실질적 권한을 갖고있는 회장 윤덕병은 해외로 도피하는 등 책임 없는 자세로 일관했으며 그나마 있었던 교섭에서도 시간끌기작전과 구사대 동원을 암시하며 위협을 가했다.

이렇게 위원장이 구속되고 구사대폭력으로 농성장이 짓겨졌지만 그러나 농성대원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1백20여명 전원이 지금도 농성을 계속 하고 있다.

앞으로 야쿠르트 노조는 건강사회 실현 운운하면서도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를 깨기위해 구사대폭력을동원하는 회사의 반민주적인 처사를 널리 알릴 계획

이라 한다. 60여일간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두에게서 승리를 위한 의지가 결연함을 읽을 수 있었다.

탐방2

청구성심병원

의사들이 구사대로 등장

"저희가 폭력을 당하면서 구원을 요청할 때는 코페기도 안보이던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병노협 회원들이 모이자 1개 소대나 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8월 27일, 바로 전날 의사·레지던트까지 합세한 구사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은평구 불광동 청구성심병원으로 달려갔다.

'진료는 응급실로'라는 낱말을 뒤로 하고 병원 현관을 들어서니 두평도 채 안돼 보이는 공간 위로 바리케이트가 쳐져있고, 그 너머에서는 TV소리인지 라디오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있었다. 수차례 계속된 병원측의 폭력으로 지칠대로 지친 조합원과 가족 40여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다.

"모두 폭력의 공포 때문에 지쳐있어서 잠시 눈중 불이자고 했어요. 어제부터는 농성장의 분위기를 흐려놓으려고 바리케이트 뒤에 구사대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지금 무척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노조 부위원장이 우리를 맞으며 해준 첫마디였다.

청구성심병원은 1977년 설립된 2백50여명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서 현재 약 2백50명 직원이 일하고 있다. 그러나 그 큰 규모와는 달리 간호사 한명이 30-35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와 한달에 20만원이 겨우 넘는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의료업무에 종사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대다수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감수해왔다.

"지난 5월 8일 저희병원 노동자들은 '참다운 병원' '화목한 노사관계'를 표

방하면서 근로환경개선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6월 9일 제 1차 단세교섭을 요구한 이래 8차례의 교섭을 시도하는 등 인내와 끈기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병원측은 처음부터 협상에 불참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오히려 노조부위원장을 파면시키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무수히 자행하면서 노조의 전열을 흐려놓을 궁리에만 골몰했다고

현관문으로 쫓겨나와 농성

7월 29일 청구노조는 노동부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내고 5일이 지난 8월 2일 병원측에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했지만 "서두를 것 없지않느냐"며 병원측은 교섭을 거부했다. 대신 파업에 대비한 준비에 급급해했다. 결국 8월 15일 오전 7시 60여명의 노동자들은 단세교섭 재결, 임금인상 정액 5만원, 부당해고철회를 위해 파업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더욱 심각해졌다. 그동안에도 될 수 있으면 환자진료에는 지장이 없도록 교섭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 동생인 기획실장이 중심이 되어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때문에 병원문 닫게 생겼다"는 등 폭언과 폭행을 휘둘러오더니 농성에 -분명 합법쟁의였다- 돌입하자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

이었다.

8월 15일 10시쯤 관리자들은 호스로 물을 뿌리고 조합원을 발로 짓이기고 구타했으며 현관문을 잠가 농성노동자들을 감금한 채 밖에서 감시를 하기 시작했고, 철조망을 치고 오중세대를 파놓는 등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전국병원노조협의회산하 각 병원 노조원 1백여명은 17일 오후 8시 청구성심병원앞에 모여 연좌한 채 감금을 풀 것을 요구하는 즉석집회를 열고 병원측의 태도를 규탄했다.

"저희가 폭력을 당하면서 구원을 요청할 때는 코페기도 안보이던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병노협 회원들이 모이자 1개 소대나 몰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더구나 평화구역인지 뭔지를 들먹이며 협박을 가하는데 그걸 보니 저희가 과연 국민을 위한 지평이들인가 싶은 게 정신이 퍼뜩 들더군요"

노조원 중의 한사람이 전하는 말이다. 마침 장대비가 쏟아졌는데도 조금치도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자정이 넘어서 자전해산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발전하자 다음날인 18일 아침부터는 감금상태가 풀렸지만, 농성자들은 원기를 회복하여 협상재개의 노력을 시작한 반면 병원측은 진료를 계속하면서 간호사를 9명이나 신규채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연이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26일 오후 2시경 방심한 농성장에 진료과장을 비롯한 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들까지 합세한 관리자들이 구사대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집기를 부수고 개인소지품을 무단 탈취하는 등 폭력을 휘둘러 보호자와 노동자 10여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불상사가 발생했고 농성자도 현관문까지 밀려나오게 됐던 것.

본회 회원들의 방문 직후인 8월 27일 오후 5시 노조는 병원측과 임금 2만 5천 원 인상, 상여금 50%인상, 복직이행, 인사위원회 노사동수구성 등에 합의하고 농성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그동안 병원측의 태도에 대한 공개사과를 진료과장이 대신하는 정도로 받아냈다는 점, 각 합의사항도 농성초기수준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비조합원과의 관계가 농성과정중 매우 불편하게 되었다는 점 등 청구성심병원 노동조합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고 하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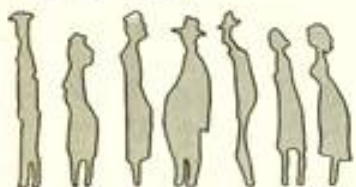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이 시작된 지 다섯달째 접어들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며 지난 7월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개정시안과 함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접수시켰다. 오는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나 올림픽 때문에 10월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 실리는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마지막 부분이다. : 편집자주

현 형 법	개 정 내 용	개 정 안	개 정 이 유
제15조(분쟁해결의 지원)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여성이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여성과 당해 사업주(이하 "관계당사자"라 한다)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문제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한다.	제15조→제16조 제16조 개정 (부분첨가)	제16조(분쟁해결의 지원)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그 근로여성 "또는 근로여성 권익옹호단체"와 당해 사업주...	관계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에 있을 때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그를 대신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제16조(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설치)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노동행정기관에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당해 지방노동행정기관 관할구역안의 분쟁을 조정한다.	제16조→제17조	제17조(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설치)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 (현행법 제16조 제2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5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분쟁의 조정 필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2인 이내의 상근전문위원을 둔다. 3. 위원의 자격·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8조 제2항 신설	제18조 1. (현행법 제17조 제1항) 2. 제1항에 의한 근로자 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당해 지방노동청장의 재청에 의해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3. (현행법 제17조 2.) 4. (현행법 제17조 3.)	고용문제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조정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위원이 이해관계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해야하므로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함.
제18조(위원회의 조정) 1. 위원회는 관계당사자가 신청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당사자의 출석 또는 필요한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자료제공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수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제19조 제19조 제1항 개정	제19조(위원회의 조정) 1. 위원회는 근로여성과 당해 사업주(이하 "관계당사자"라 한다)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정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현행법 제18조 2.) 3. (현행법 제18조 3.) 4. (현행법 제18조 4.)	현행법에서는 분쟁조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정기간이 장기화할 여지가 있으므로 분쟁해결의 지연으로 인한 관계당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의 시한을 명시하고 관계당사자가 조정과정을 속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제20조 신설	제20조(조정 효과) 1. 당사자가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을 수탁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정결과의 효력보장을 위해 관계당사자의 합의를 명시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과 조정서 내용의 법적 효력 명시.

제5장 보 칙		제5장 보 칙	
제19조(신고 및 지도) 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에게 신고하게 하거나, 조언, 지도 또는 권고 할 수 있다.	제19조→제21조	제21조 (현행법 제19조)	
제20조(경비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취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제22조	제22조 (현행법 제20조)	
제2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신설	제23조(임종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임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해결과정에서, 사용자가 취한 조치가 고용에서의 남녀차별행위가 아니며 합리적인 것임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벌 칙	제21조→제24조	제24조 (현행법 제21조)	
제22조(벌칙)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25조 제25조 제1항 개정	제6장 벌 칙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 제2항 개정	제25조 1. 사업주가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2. 사업주가 제9조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개정안 제6조 내지 제8조, 제12조의 규정이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과의 균형을 위해 부당고용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준한다. 또한 개정안 제9조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를 적용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의 균형을 이룬다.
부 칙	제23조→제26조	제26조 (현행법 제23조)	
이 법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변경없음		

간헐말 흐르는말



○……요지경 세상이로소이다. ……무엇이 간헐고 무엇이 흐르는지 아이쿠! 그마저 뒤죽박죽일세. 간헐던 게 어느날 우당탕탕 흘러내리는가 했더니, 아니 잘 흐르는 줄 알았더니 또다시 공공 간헐 있질 않은가 그러.

○……연희궁 영부인마님이 어느새 코미디언으로 변신했다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 것을” “우리 대통령은 역시 그릇이 다른 분” “아, 새벽 2시만 되면 울화병에 소리를 지르고 싶다.”

여보슈 영부인 마님, 우리를 웃겨주는 것도 좋지만, 당신 그 말씀에 배꼽 쥐기 전에 양심지를 둔줄 수밖엔 없는 우리 ‘보통사람’들 멍든 가슴도 제발 한번쯤 헤랑하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서 발

살하여주시옵소서.

○……옛날 맹자 어머니는 자식교육을 위해 세번이나 이사를 다녔다 하여 맹모삼천이라. 우리나라 교육행정은 바람결의 갈대보다 더 흔들흔들, 휘청휘청하여 글에 그 뭐랄까 조변석개, 조삼모사…, 게다가 요즘 해괴한 풍문이 나돌고 있으니, 그 서슬퍼런던 과외금지조치를 철회한다나? 바로 얼마전까지도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던 과외가 며칠사이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다’로 둔갑해버린 문교부 여론조사. 그 해설인즉슨, “예뻐, 예뻐, 민주화시대가 되어 모든 제 자유화되다보나…/?”

○……TV채널 어느곳을 둘러도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올림픽 주제곡 ‘손에 손잡고’. 신문·잡지·방송 할 것 없이 모두 울, 울, 울, …림, 림, 림, …픽, 픽, 픽…, 아하 그럴소이다. 그속에서 보는 대한민국 정말 평화롭기 그지없소이다.

○……헌데 또 이견 뭔가. 너무 평화롭다보니 아예 이름까지 붙여버렸구만! ‘평화구역’ ‘여기도 평화구역’ ‘평화구역안에서 단체행동 엄벌’ ……한손에는

평화의 햇불, 또 한손에는 곤봉이란 말이 딱 어울리게 한쪽 눈 질근 하근 국민에게 으름람. 남들 잔칫상 때문에 우리 국민 생존이 짓뭇개지는 올림픽이라면, 글썽을시다. 평화구역에서 외국인들이 ‘손에 손잡고’ 헤헤 거리는 동안 우리 이웃들은 ‘손에 손잡고’ 오랏줄에 묶여 끌려가거나 않게 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 ‘환송·환영은 직장이나 가정에서’ ‘우리의 관문인 공항을 보다 넓게, 보다 쾌적하게’ 켜 때야닌 구호인가 했더니, 알고보니 일부 여성단체에서 올림픽에 오는 외국관광객을 위해 대대적으로 벌이는 캠페인이라고 뭐 공항 넓게 쓰자는 데 나쁠 거야 없지만 작년 NWA 여성들이 생존권을 위해 공항에서 피땀 흘리며 농성하던 때는 못내 침묵으로 일관하던 장본인들이 유독 이제서야 공항 일에 발뺌고 나서다나… 너무 늦었소이다 그러.

게다가 우리 서민들, 공항이 도대체 얼마나 넓고 쾌적한지 한번이라도 가봐 알지. 아니, 그래야 운동이랍시고 발뺌고 따라나서기라도 할 게 아닌가.■

이런모임/노동자부인들이 연 일일주점

부인들이 모여 지역 탁아소를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라고 있고 부모도 내 지식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엄마는 서로를 억압하면서 또한 서로가 없으면 절대 안되는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편해지는 방법은 없나, 엄마가 자기일을 찾아하면서 좀더 변화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 수는 없나, 하는 생각에서 이 탁아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손국 '일하는 엄마와 어린이공동체' 운영때부터 마련(?) 아이가 그 앞에 섰다

"여러분 잠시만 여기 주목해주세요 변변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일하는 엄마와 어린이공동체'라는 손국을 준비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오후 인천 부평역 부근 한 사무실안에는 이색 일일주점이 열리고 있었다. 막걸리와 도토리묵, 빈대떡, 과일 등이 한차례씩 돌아가며 '손님'들이 제법 모여들었을 때 이날 일일주점을 주최한 한독금속부인회 회장을 맡고있는 임경옥(29)씨가 나서 장대를 정돈했다.

풍물소리를 섞어가며 시작된 이 손국에는, 자나깨나 노조일에 쫓겨 집안일·아이 돌보는 일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남편, 탁아소엔 가기 싫다고 울부짖는 아이들, 그 사이에서 명을쳐가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살아가는 노동자부인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부인들은 함께 모여 공동탁아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우리도 더이상 집안에만 매여 있을 수는 없다"

"엄마들도 자기일을 찾아야 한다"

부인들이 아이들과도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희망과 결의를 노래하면서 극은 끝이 났다.

한독금속부인회와 호박부인회

이날 일일주점의 정식 명칭은 '갈산·삼산동 지역탁아소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주최는 한독금속부인회에서 했지만 실제로는 '호박부인회' 모임이 주춧돌이 되었지요"

한독금속부인회는 지난 4월 임금인상 투쟁때 '한독가족협의회'가 만들어졌던 데서 출발했다. 주로 노조간부와 열성조합원들의 부인이었던 10여명의 가족들이 이 협의회를 만들어 파업농성을 도왔다. 이런 도움에 힘입어 농성은 승리로 끝났

지만 이 부인들에게는 새로운 의문이 들었다.

"집에서도 땀날 밥만 하고 그러는데 왜 여기에 와서도 우리는 늘 세끼 밥해주는 일만을 해야되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물론 상무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기도 하고 유인물도 같이 뿌리긴 했지만요. 한마디로 우리 부인들도 발언권을 갖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독가족협의회는 농성후 곧 없어져버렸지만 대신 이 몇몇 부인들은 '부인회'를 만들어 계속 모임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한독금속 부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천지역의 '달답한' 부인들-대개 20대 후반으로 부업을 하는 사람, 아니면 옛날에 공장엘 다녔지만 지금은 애 때문에 집에 있는 부인들-이 모여 최근 '호박부인회'를 만들었으며, 그리하여 이 호박부인회가 전력으로 지원하고 한독금속부인회가 직접 추진할 '지역탁아소'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임경옥씨네가 시댁에서 돈을 보태줘서 이번 9월 초그만 20평 짜리 아파트를 사게 됐어요. 한독금속 사무장인 남편이 같이 제안해서 그 집을 탁아소로 만들기로 했지요"

임씨와 함께 부인회 일을 하고 있는 김순지씨는 그래서 일부터 1층으로 구했다고 설명했다. 갈산동·삼산동 부근에 민주노조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노조일로 바쁜 가족의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고 한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5~20명 정도를 수용하고 한달에 약 3만5천원씩 받을 예정. 부인 3명이 돌아가며 보모를 할 계획인데 저마다 현재 아기를 배고 있거나 갓난애기 엄마들이다.

빠르면 9월중순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장소(인천시 북구 삼산동 191 대보아파트 2-109)는 마련됐지만 지속적인 운영에 도움을 줄 후원회가 절실하고 또 놀이기구 등 당장 필요한 것도 태산이라 사업도 알리고 재정적 도움도 받고자 이 일일주점을 열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편해지는 방법

계속 손님들이 들고나는 주점 한 구석에는 이 부인들이 손수 쓴 대자보가 당당히 붙어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 노동자 부인들은 막연한 꿈을 안고 결혼했다가 아이를 하나 둘 낳고 집안살림 하다보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가사노동과 애뒤치닥거리, 남편 뒷바라지에 자기일을 잃고 자꾸 핏결을 칠치게 됩니다. 더구나 남편의 월급은 늘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서 부업을 한다, 공장에 나간다, 이 궁리 저 궁리 하게 됩니다.

애 때문에 제대로 돈벌이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이들을 공동으로 기른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이기적으로 자라고 있고 부모도 내 지식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와 엄마는 서로를 억압하면서 또한 서로가 없으면 절대 안되는 관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편해지는 방법은 없나, 엄마가 자기일을 찾아하면서 좀더 변화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 수는 없나, 하는 생각에서 이 탁아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 비슷한 뜻을 가진 부인들이 모여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민우상담실

물음

저는 생산물 전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전자회사 생산2과 대의원입니다. 저희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2년전 재선되어 5년째 위원장직을 맡아 오면서 회계감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또 올 임금협정 때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임금인상 요구액(최고 28%, 최하 20%)을 무시하고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상집위원회를 열어 14%로 낮춰 결정한 후 회

이에 일고 있는 논란을 하나로 모아야겠습니다.

임시총회를 열어 전조합원의 의견을 모아봅시다. 노동조합법 제26조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반드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후

적극적인 대의원들이 앞장서 6백명 조합원중 4백10명의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먼저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현 위원장의 신임 여부를 둘러싸고 조합원 사이에 일고 있는 논란을 하나로 모아야겠습니다. 임시총회를 열어 전조합원의 의견을 모아봅시다. 노동조합법 제26조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반드시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측과 합의해버렸습니다.

한밤중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옷장속에 한장한장 끼워 넣었던 소식지, 가슴에 필력이던 '28% 쟁취' 리본, 조합원의 눈을 피해 손에서 손으로 넘겨진 서명용지, '단결, 단결!'을 다짐했던 등산대회, 이 모든 활동들을 깡그리 외면한 채 위원장은 독단적으로 합의의 도장을 찍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를 배신한 노조위원장을 갈아치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조합원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길이 우리 조합원 전체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답

어떤 일이 있어도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노동자의 대표기구인 노동조합이 그 기능을 잃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먼저 노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현 위원장의 신임여부를 둘러싸고 조합원 사

노조위원장이 제멋대로입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생산노동 현장에서 우리 여성들이 안고있는 고민을 안심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그 가운데 발굴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성문제: 연애, 결혼, 성문제, 그 외 성차별적 문제

② 노동문제: 임금 및 각종 수당, 해

명을 받았다. 그러나 위원장은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여 조합원들의 위원장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갔다.

그러던 5월 24일 위원장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5월 31일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제시하였다.

임시총회 소집공고 다음날인 5월25일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회사측은 서명에 앞장섰던 대의원과 조합원을 전격 해고시켜버린 것이다. 물론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는 이를 방조하였다.

5월 31일 대망의 임시총회가 열렸으나 결과는 '정족수 미달'로 유산되어 버렸다. 회사측과 현집행부는 임시총회장의 문을 차단함으로써 고의로 정족수를 채우지 않았던 것이다. 정족수가 미달인 경우 보통은 더 많은 조합원이 참석할 때까지 기다리는 유연성을 가져야 하며 다음 임시총회를 언제 속개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사라져 버렸다.

허탈해진 조합원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행정관청인 시청에 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하였으나 '내부적 조직싸움이 다, 이유없다' 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해고된 열성 대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해고조치는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탄압이므로 노동조합법 39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이며, 해고시 징계위원회를 열지않고 갑자기 회의실로 불러가 회사측 상벌위원회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해고이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을 밝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고 있다.■

고, 산업재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교육에 관한 문제

③ 교육문제: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느끼는 자녀양육, 학교교육에 관한 문제
상담시간은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변접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처해있는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서신상담과 전화상담(313-1060)도 합니다.

이달의 소식

김경숙열사 9주기를 맞아 열린 여성노동자전진대회

지난 79년 YH무역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중 추락사망한 김경숙열사 9주기를 맞이하여 여성노동자 전진대회가 8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성문밖교회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기독교여민회 등 4개 단체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5백여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김경숙열사 추모식, 2부 여성노동자 전진대회, 3부 대동놀이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회사에 이어 79년 YH사건 당시 노조지부장이었던 최순영씨가 YH 무역의 노조결성과 근로조건 개선 투쟁, 회사의 폐업과 사장의 미국도피, 노조원들의 신민당사 농성, 경찰의 진압 등 당시의 상황을 증언해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이어 최군의 부평 코스모스전자 여성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과 아주파이프 노동자 부인들의 가족실천 사례가 발표됐고 YH무역 노조운동을 극화한 연극 '들불로 다시 살아'가 공연됐다.

이날 대회는 지금껏 김경숙열사 추모 9주기를 맞았지만 그때마다의 억압적 정치상황으로 계속 대회다운 대회를 치러 보지 못한 채 이번에만 처음 제대로 열렸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감회에 젖게 했다.



사무금융노련 9개월만에 필증받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구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위원장 최재호)이

노조설립 9개월만인 지난 8월 13일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사무노련은 한국노총의 가입인준증을 받지 못한 최초의 산별노련이 되었다. 또한 앞으로는 기존노련과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새 산별노련을 사실상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사무노련은 원래 작년 11월 27일 금융노련으로부터 탈퇴한 보험·증권·단자회사 등 제2금융권 노조가 중심이 되어 한국자유금융노동조합연합(자금노련)이란 이름으로 결성된 것. 그러나 다음날인 28일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으나 자금노련이 노총의 인준증을 받지 못했고 기존의 금융노련과 조직대상이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부는 신고서를 되돌려보냈다.

또한 지난 2월 5일 금융노련이 규약을 고쳐 제2금융권을 조직대상에서 제외, 3월 3일에는 22개 보험노조중 금융노련에 남아있던 8개노조가 전국보험노련을 설립해 자금노련과 보험노련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었다. 한국노총은 즉시 보험노련에만 가입인준증을 주었고 노동부는 4월 12일 보험노련에 신고증을 내준 것.

자금노련은 지난 8월 4일 단위노조위원장회의에서 명칭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으로 바꾸고 보험회사의 조직대상을 지난 6월말까지 가입한 9개 노조로 제한하는 등 규약을 개정, 마침내 신고증을 받게 되었다. 노동부는 그동안 문제삼아왔던 한국노총의 가입인준증에 대해 자유로운 노동조합조직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상급노동조합의 가입인준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대전 여성한미당 '우리의 소원은 통일'

대전주부아카데미협의회와 충남여민회

는 8월 28일, 29일 이틀간 대전 카톨릭 문화회관에서 제1회 여성한미당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개최했다.

첫째날, 대전주부아카데미협의회 여성문화제인 '어깨를 걸고'가 갑오농민전쟁 이후 오늘날까지 여성이 당했던 수난과 그 극복과정을 다룬 '불망기'란 연극을 공연했다.

둘째날은 '평화통일과 여성'이란 주제로 이우정(여성단체연합 회장)씨의 강연,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편지와 노래부르기가 있었다.

주최측은 민족적 과제인 조국통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대전지역의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통일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자리라는 데에 여성한미당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통협, 민간 통일운동 탄압에 성명서 내

갈라진 조국의 단합과 자주적 통일을 이루려는 움직임이 민간차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통련,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11개 단체가 결성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민주단체협의회(조통협)'가 국토순례대행진, 통일염원 서울시민 걷기대회, 8·15 남북학생회담 참관 등 통일운동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것.

그러나 통일에 대한 염원이 한창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원천봉쇄와 엄청난 물리적 탄압으로 8·15 남북학생 회담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조국통일운동을 탄압하고 나섰다.

이에 8월 18일 조통협은 성명서를 발표, 미국·노태우정권에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첫째, 올림픽을 분단영구화와 독재연장의 기회로 삼고 이를 명분으로 애국민주세력을 탄압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8월 14일 통일염원 서울시민 걷기대회와 8·15 남북학생회담에 대한 폭력탄압을 사과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셋째, 학생회담 대표 김종기씨를 비롯한 불법연행된 시민 학생과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부상당한 사람에 대해 즉시 보상하라.

동남보건전문대학 교수들 농성

교수들이 평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동남보건전문대학(이사장 이회구) 평교수협의회 교수들이 재단측이 학교운영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며 지난 8월 30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간 것. 학생들도 학과대표로 구성된 비상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면 수업거부에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학사운영이 마비되고 있다.

학생수 약 2천명의 이 대학은 77년에 설립된 이래 재단측이 학사운영에까지 일일이 간섭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도서관 건립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강제로 기금을 징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는 것. 또한 2학기 들어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수 5명을 별 이유없이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

농성교수들에 의하면 그동안 교직원

신분과 연구활동에 대한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단측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학내사정을 잘 아는 경우, 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타당한 이유없이 재임용에서 탈락-그것도 사표형식으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고, 그간 도서관건립기금반환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간의 불신감이 고조되어 학생지도차원에서 이번의 단체행동은 불가피했다고 한다.

특히 여교수들의 경우 결혼이나 임신, 출산으로 재임용에서 탈락되거나 학기중이라도 사표를 종용받는 것은 보통이고 출산휴가도 3주밖에 허용되지 않으며 이때 대강료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등 매우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왔다는 것이 다.

이에 교수들은 재임용탈락을 통보받은 지난 8월 22일 발기인대회를 거쳐 23일, 46명의 교수중 39명이 참가한 평교수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학교측에 ① 재임용탈락에 대한 해명과 인사위원회 개최 ② 도서관건립기금 반환 ③ 학생복지시설의 투자를 요구하는 결의서를 재단측에 보냈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달의 소식

수원여민회준비위 수원여성한마당 개최

(가칭)수원여민회준비위원회(위원장 박정순)는 오는 9월 13일 수원여성한마당을 개최한다. 저녁 7시부터 수원성공회에서 열릴 예정인 이번 한마당은 '한국여성의 삶과 여성운동'이란 주제의 강연과 준비팀이 직접 참가하여 여성의 현실을 고발하는 노래마당, 그리고 끝으로 마당극 '불꽃이어, 이 어둠을'이 공연된다. 이 마당극에는 민우회 문화팀이 참가.

(가칭)수원여민회준비위원회는 수원지역에서 여성문제의 선전과 여성운동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뜻을 같이 하는 수원지역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회원활동을 할 예정이며 9월 20일부터는 2주 4회에 걸쳐 수원여성교실을 개최한다.

문의는 (0331) 45-1564. ■

노래를 바꿔 불러봅시다!

원래가사

1. 아무리 우겨봐도 / 어쩔 수 없네 /
저기 개똥벌레 / 내 집안 걸 /
가슴을 내밀어도 / 친구가 없네 /
노래하던 새들도 / 멀리 날아가네 /
가지마라 가지마라 / 가지 말아라 /
나를 위해 한번만 / 노래를 해주렴 /
나나 나나나 / 쓰러진 가슴안고 /
오늘밤도 그렇게 / 울다 잠이 든다 /
2. 마음을 다 주어도 / 친구가 없네 /
사랑하고 싶지만 / 마음뿐인 걸 /
나는 개똥벌레 / 어쩔 수 없네 /
손을 잡고 싶지만 / 모두 떠나가네 /
가지마라 가지마라 / 가지 말아라 /
나를 위해 한번만 / 손을 잡아주렴 /
아-외로운 밤 / 쓰러진 가슴안고 /
오늘밤도 그렇게 / 울다 잠이 든다 /



'개똥벌레'

노래는 언제 들어도 즐겁고 흥이 난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부르는 노래들을 가만 살펴보면 우리들의 진짜 감정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도 있고 또 정말 우리의 감정을 노래하려 할 때는 막상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좋은 노래가 없을 때가 많다. 요즘 한창 퍼지고 있는 '노래 가사 바꿔부르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런 사정에 맞추어 유행가에 가사만을 바꿔부르는 방법이다. 본지에서는 유행가에 바꿔 붙여진 좋은 노래가사들을 계속 소개하려 한다. : 편집자주

바꾼가사

1. 아무리 일해봐도 / 어쩔 수 없네 /
장시간의 노동이 / 헛수고인가 /
정성을 다해봐도 / 보람이 없네 /
나의 작은 꿈마저 / 산산히 부서지네 /
잔업조출 참아특근 / 시키지마라 /
여덟시간 노동으로 / 생계비 정취 /
나나 나나나 / 희망찬 가슴 안고 /
88년은 8시간노동 / 완전 정취하자 /
2. 아무리 억압해도 / 어쩔 수 없네 /
여기 노동조합이 / 내 집안 걸 /
가슴을 활짝 열고 / 관심을 가져봐요 /
외면하던 사람도 / 이리 다가오네 /
어서 와라 어서 와라 / 어서오너라 /
우린 모두 노동자들 / 환영한단다 /
나나 나나나 / 희망찬 가슴안고 /
우리 노동자는 / 전진한단다 /

●이번호에 소개되는 '개똥벌레'는 그 자체로도 노동현장에서 널리 불리고 있는 노래이며 이름 바꾼 개사곡도 또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독자들의 실정에 맞는 가사들을 만들어 보내주시면 계속 실겠습니다.

독자독후감

이 시대 불감증 환자에게 외침

이가연 지음 /
한울출판사 /
값 2천 7백원

정미경 (서울 강동구 성내2동)



지금으로부터 5년전 작
은 실천으로부터 우
리것을 찾아 참다운
공동체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운동이 시작되었
다. 생활 문화운동이 그
것이다. 우리의 먹거리(식
생활), 입거리(의생활), 살
림터(주생활) 문화를 되살리
는 작업을 통해 건강한 민족문
화를 지향하는 이 운동은 학교에서 사
회에서 널리 뿌리내리고 있다.

「날아라 장산곶매야」는 바로 우리 주
변의 생활문화가 갖는 문제점들을 지적
해내고 우리의 것을 끝추세우려는 의도
에서 나온 책이다. 이 책은 친근감있는
일상용어와 풍부한 삽화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라면천국인가?
라면지옥인가?」 「물빠진 청바지 언제까
지 입어야 하나?」 「수상쩍은 이야기-
나뭇꾼과 선녀」 등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넘기기 쉬운 외래문화의 문제점, 각종 공
해, 동심을 파괴하는 동화속의 지배계급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젠 안방차지까지 해버린듯한 외래문
화, 소비향락문화는 핵을 빼고 누워서도
위기를 못느끼는 불감증 환자들을 양산
해 내고있다. 끝내 우리가 보듬고 나가
야 될 우리역사·우리터전을 함께 되살
려 나갈 때, 더불어 사는 신명나는 우리
문화를 만들어 나갈 때 장산곶매는 협차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지 '갈치가 제 꼬리 잘라먹는 암담한
현실'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각종 세제와 공장폐수로 물을 오염시
키고도 그 물을 마시며, 식량무기화가
멀지 않은데도 우리의 농촌을 폐쇄화시
키고 있다. 거리마다 뜻모를 외국어가
물결치고, 외제상품이 범람하고, 우리의
얼을 빼앗으며 참 삶에 대한 우리의 불
감증을 파괴하는 제국주의와 독점제벌의
마수가 곳곳에 뻗어있다.

그뿐만아, 전폐증, 중금속·농약중독으
로 죽어가는 농민·노동자들, 사시사철
위험에 방치된 산동네의 빈민들, 고스름
판으로 출판으로 세월보내는 사람들, 잠
시만 주위를 둘러보아도 숨이 막힌다. 앞
날이 뿌옇게만 보인다.

누가 뭐래도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우
리것을 찾아 되살리지 않으면 안될 때이
다.

아리랑대

이선



게 날아오를 것이다. ■

「함께 가는 여성」에서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매달 1일 발행됩니다.

●창간 1주년입니다. 본지에서는 창간
1주년을 맞아 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
문지를 지난 7월호와 함께 돌렸습니다.
원래 그 결과를 이번호에 실을 예정이었
지만 아직 회수가 덜 되어 부득이 다음
호로 연기합니다.

●혹 아직 설문지를 보내지않고 계신
독자들께서는 늦어도 9월 20일까지 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자신의 현장, 혹은 그 주위에서 일
어나고 있는 일을 원고로 직접 작성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본 편집실로 취재
를 맡겨주시고, 본지에 실리는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정기적으로 본지와 의견을 나눌 수

있을 '함께 가는 여성 통신원'을 모집합
니다. 1년에 몇회씩 본지에 원고를 작성
해주시거나 기타 기획을 함께 할 수 있
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자세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원고 등을 우송하실 분은 120-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0-6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가는 여성」 담당
자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가는 여성」을 받아보시려면

① 본지는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이나
전국 몇몇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
다(가격은 1부에 5백원).

② 본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려면 본
회의 「함께 가는 여성」 구독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연회비 7천원.

회원이 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온

라인이나 지로를 통해 송금하신 후 전화
로 본인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말씀
해 주시면 매월 본지를 우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송금하실 곳

상업은행 109-08-195935 홍영주

제일은행 277-20-195962 홍영주

●지로창구 이용

가까운 은행 어디든지(한국은행·산업
은행 제외) 지로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
습니다(본회 번호: 7519497). 이용하실
분은 신청과 함께 말씀해주시고, 우편
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③ 자세한 문의는 313-1060